

주식시장 리뷰와 미 증시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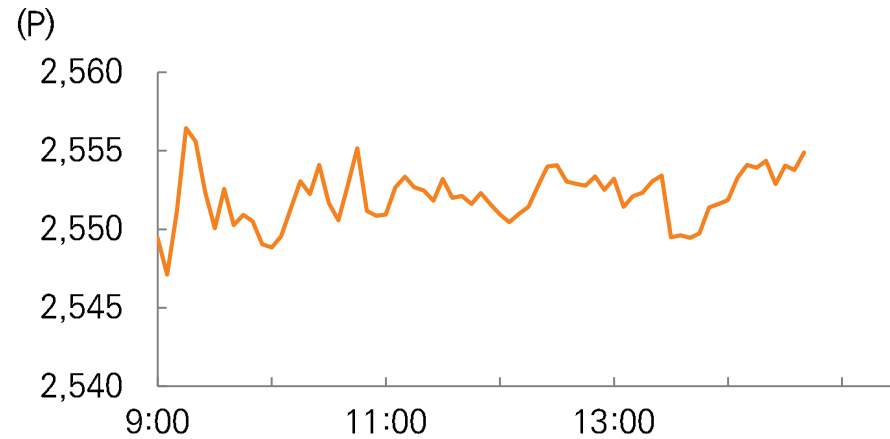
김석환 seokhwan.kim@miraeasset.com 박수진 soojin.park.a@miraeasset.com

중국 증시, 미-중 무역 갈등 완화
기대감에 강세

한국 증시 장중 리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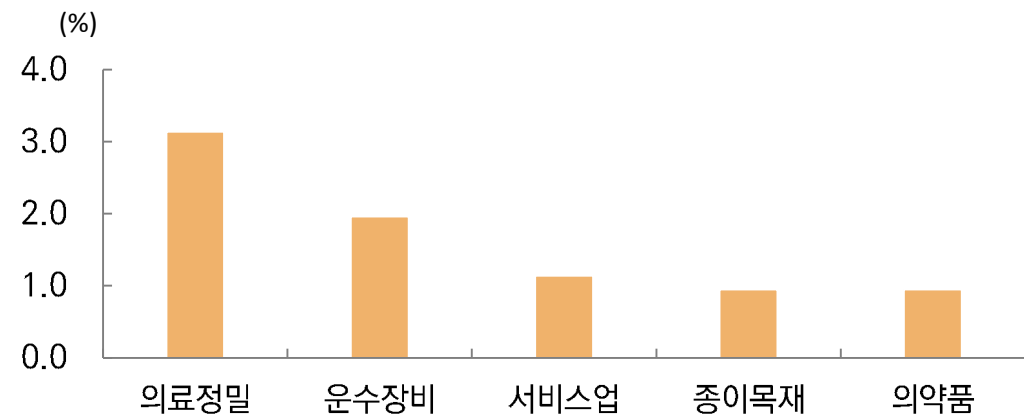
[코스피, 미-중 갈등 완화 기대감에 상승]

[코스피 지수 일종 흐름]



출처 : 블룸버그,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(14:50 기준)

[코스피 상승 업종]



출처 : 카이로스,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(14:50 기준)

코스피, 코스닥 모두 상승.

미국 증시가 잭슨홀 컨퍼런스 이후에도 상승세를 유지, 미-중 상무장관 회담에 따른 갈등 완화 기대감도 반영.

다만, 미국의 고용 및 물가지표 발표 앞둔 관망세도 상존
조선, 제약, IT H/W 업종 상승. 음식료 업종 하락

조선업종 상승. 최근 국제 유가 및 신조선가 상승세가 호재로 작용

아시아 증시 장중 리뷰

[중국 증시, 미중 갈등 완화 기대감과 외국인 매수세 유입]



중국, 홍콩 증시 모두 강세.

전일 증시 부양책에도 외국인 매도 확대에 전강후약 장세를 보였던 중국 증시는 외국인 반발 매수유입에 따라 상승폭 확대.

또한 미국 상무장관의 방중과 실무 회담에 따른 기대감도 반영

연내 미-중 정상 회담 가능성, 무역 관련 실무 그룹 운영, 고율관세, 반도체 제재 등 논의 진행. 태양광, 반도체 등 기술주 강세. 개별 실적 발표에 따라 전기차주 강세

전기차주 강세. 비야디 서프라이즈 실적 발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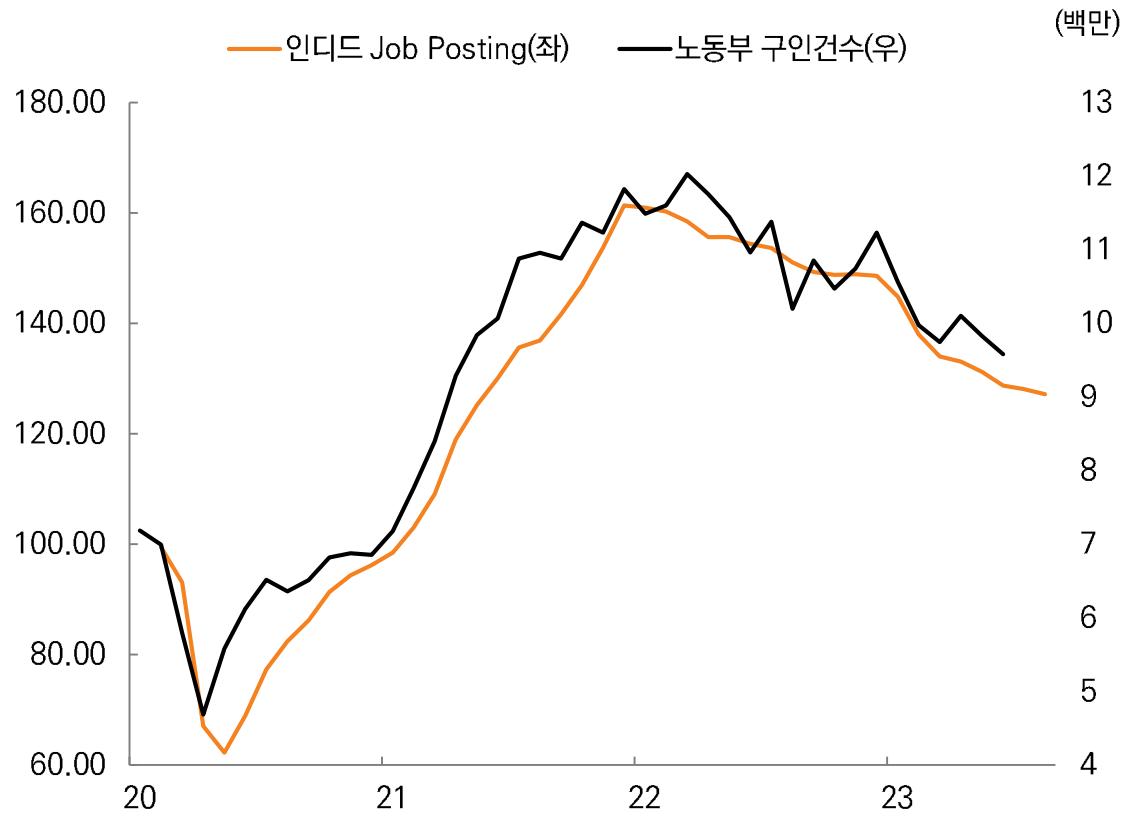
상반기 매출액 2601.24억 위안 (+72.72% YoY) / 지배주주순이익 109.54억 위안 (+204.68% YoY)를 기록.

전기차 판매가 중국내 1위를 공고히 유지, 해외 매출 또한 급성장 중임을 확인하며 투자심리 회복 견인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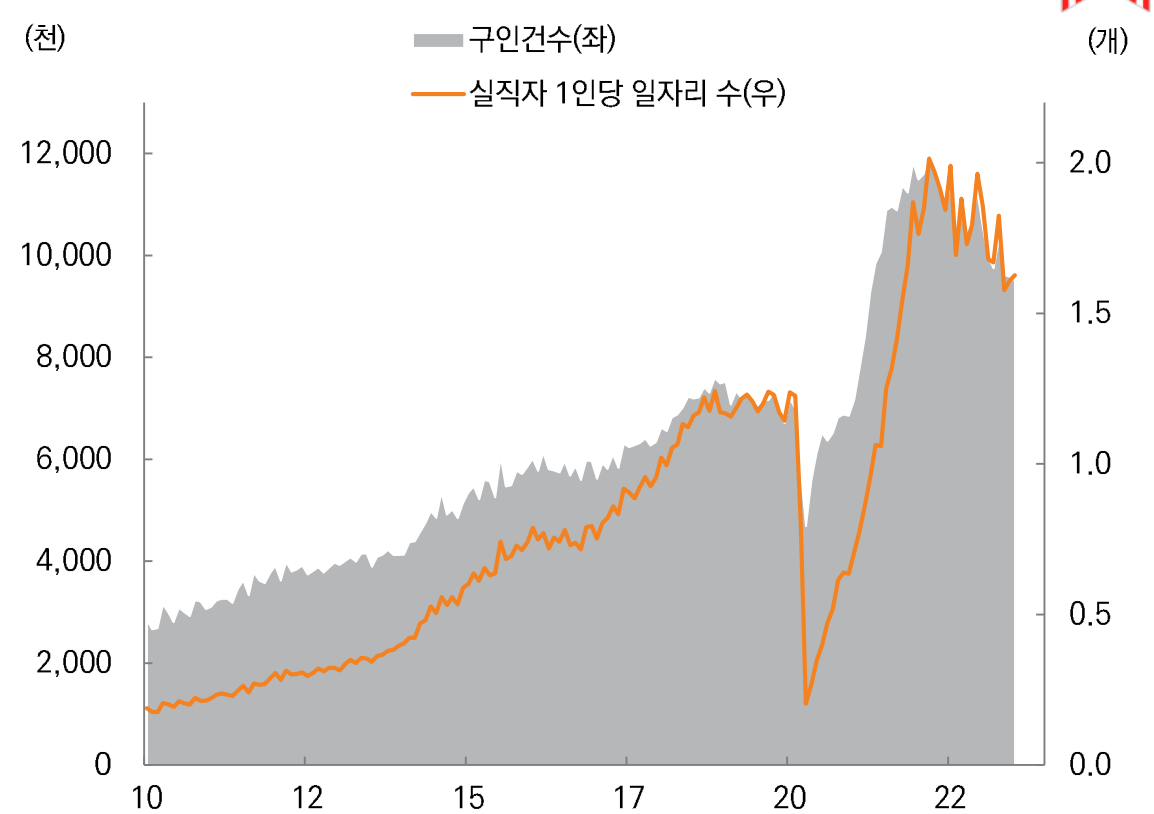
미 증시 전망

[주택가격, 소비자신뢰 및 고용]

[미국 구인건수 동향]



[미국 구인건수 및 구인배율]



자료: FRED, BLS, 블룸버그,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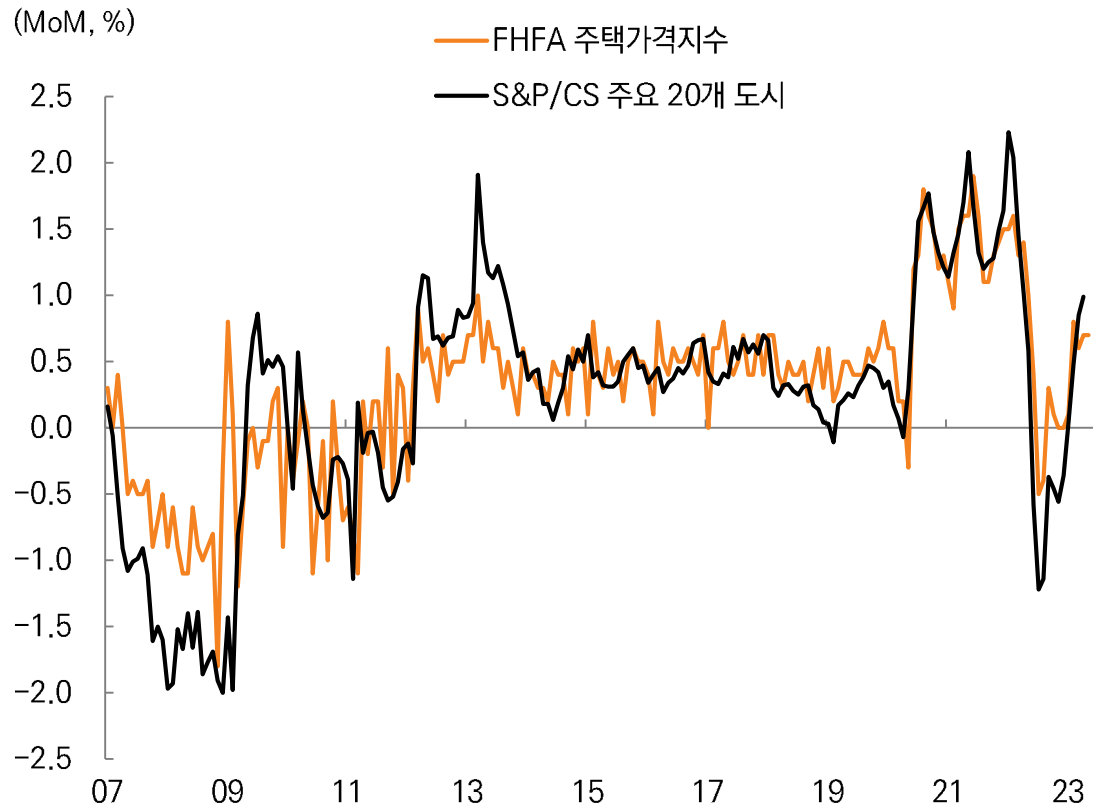
씨티 “미국 기업들 올해 약 8천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예상”

최근 엔비디아는 250억 달러 상당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. 씨티에 따르면 올해 미 상장 기업들은 약 8천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예상. 이는 지난해 대비 11% 줄어든 것. 금일 구인이직(JOLTs) 보고서를 시작으로 고용지표 연달아 발표 예정. 구인건수 둔화 지속되는 가운데, 구인배율은 실직자 감소 폭이 더 커 오히려 소폭 상승 예상

미 증시 전망

[주택가격, 소비자신뢰 및 고용]

[미국 주택가격 동향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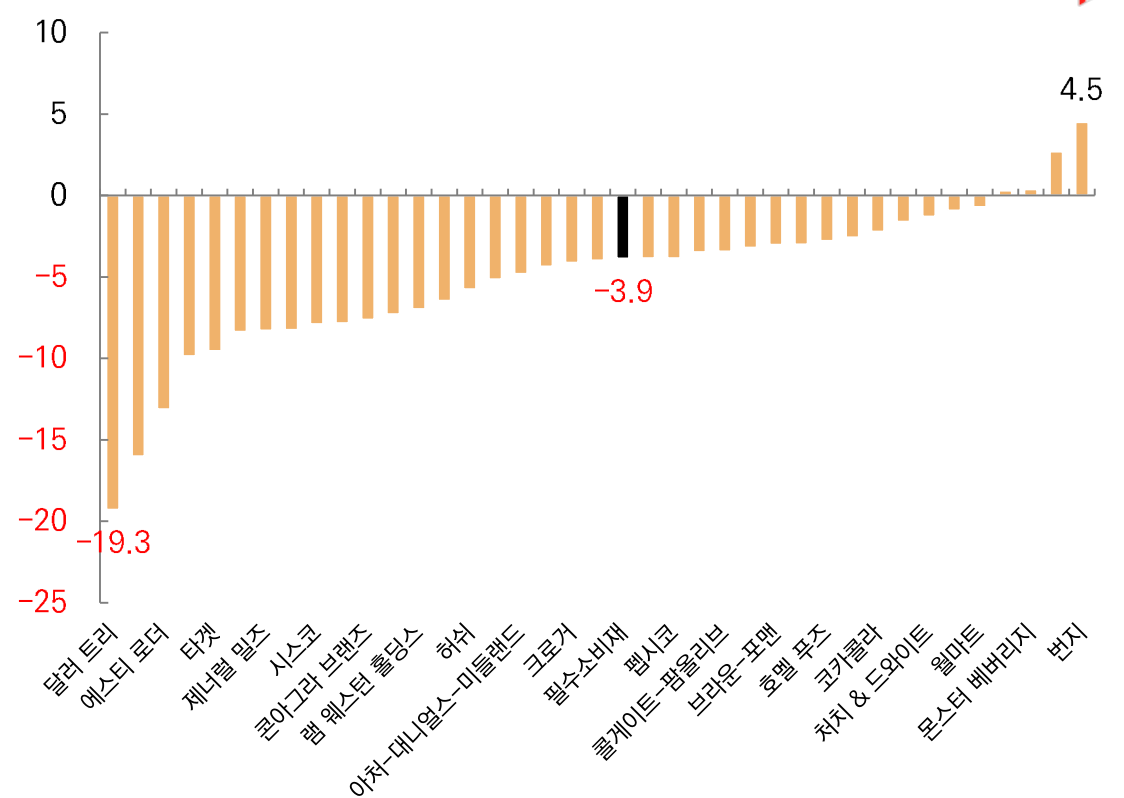


자료: 블룸버그,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

주택가격 하방경직성

향후 핵심 PCE 인플레이션의 둔화는 전년대비 주택가격의 하락세의 기여 커질 것. 다만 올해 들어 주택시장 심리 개선과 함께 가격 반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감 확대

[S&P 500 필수소비재, 8월 수익률]



자료: 블룸버그,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/ 주: 8월 28일 종가 기준

소비자 재정 건강 우려

2분기 호실적을 발표한 주요 유통/소매 업체들의 부진한 주가 흐름 이어져. 이는 향후 실적에 대한 우려 때문. 이자율 상승, 학자금 대출 상환 등은 소비자의 소비 둔화 압력 키울 전망

[Compliance Notice]

-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.